

주민 입주 한달 나주 혁신도시 가보니...



# 편의시설 속속 들어서 명품 신도시 윤곽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 혁신도시가 기관 이전 1년, 주민 입주 한 달이 지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서서히 갖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1년 이 지난 우정사업정보센터 인근에는 식당, 마트, 은행 등이 생겨났다. 구내식당에서만 점심 해결이 가능했던 직원들은 1일 점심시간이 되자 삼삼오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점심 후에는 주변을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눴다.

#2. 전입을 신고한 279세대 600명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빛가람주민자치센터에는 '우편·택배 불편', '쓰레기 처리' 등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도로명주소인 '그린로 276번지'가 아닌 옛 지명인 '신도리'를 주소에 써넣어야 한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 각양각색 16개 공공기관 청사 공정률 71% 주민센터 업무·원도심 연결 순환버스 운행 279세대 600명 전입...우편·택배는 불편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 혁신도시가 기관 이전 시작 1년, 주민 입주 한 달이 지나면서 '도시'로써 갖춰야 할 시설들을 하나 둘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이전기관 직원 및 주민들의 불편도 현저히 줄었다.

지난 2월14일 광주은행, 2월24일 주민지원센터에 이어 1일 이동과출소가 업무를 시작했고, 나주시는 이날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순환버스를 투입했다.

우정정보센터 이기석(42)씨는 "최근 나주로 이사했으며, 직원 10명 중 7명의 주소지가 이곳이다"며 "1년 전에 비해 편의시설이 대폭 갖춰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우정정보센터를 비롯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이전을 마쳤거나 건물이 준공된 기관 주변

에는 이미 식당, 공인중개업소, 편의점 등이 들어서 있다.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 B4구역 LH아파트 602세대는 이날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1층 3세대가 나가면서 '완관'됐다. 혁신도시 프리미엄을 예상한 서울 등 외지 공인중개업소들이 웃돈을 주고 10채 이상 구입을 주문하고 있지만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인근 S부동산의 말이다.

광주은행 빛가람지점 나인균(50) 지점장은 "시장을 선점한다는데 의미가 있어 4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내거나 대출을 문의하는 주민이 대부분으로, 실직은 괜찮은 편"이라며 활짝 웃었다.

혁신도시 9개 공구 부지조성공사는 이미 끝났고 호수공원 조경공사 및 가로등 시설은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6개 공공기관의 청사 공정률은 지난 31일 현재 70.7%로, 각양각색의 건축 디자인을 드러내며 '명품도시'의 가능성을 보였다. 방갈루 혁신도시 지원단장은 "올 하반기까지 15개 기관이 이전하며, 이에 맞춰 주택, 공공서비스, 상업·편의시설 등을 공급해 직원 및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입주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7명으로 구성된 빛가람주민자치센터도 바빠졌다. 나주·광주에서 이사 온 주민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전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민원은 주로 우편·택배, 쓰레기 처리, 청소 등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박정인(여·54·7급)씨는 "아직 도시가 완전히 갖춰져 다소 불편한 점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이해해주는 편"이라며 "젊은 세대들의 입주를 상정하듯 보육료 신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 오후에는 혁신도시 3번째 입주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원식을 갖고 240명의 직원들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 작은 지진, 불안한 원전

어제 태안해역 역대 3번째 규모...전남 11곳 '지진 I 구역' 지정

태안 해상에서 규모 5.1의 역대 3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서해안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서해안에만 5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진이 잇따르면서 서해안에 유일하게 지어진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50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1의 지진은 1978년 기상청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선 세 번째 규모다.

기상청은 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장비가 부족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모두 93회로, 이 중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은 52회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4월21일에는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역대 광주·전남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4.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서해안에 유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영광에 위치한 데다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광주·전남지역민의 우려도 적지 않다.

소방 방재청이 건축물·댐·교량 등 내진 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에 활용하는 '국가 지진위험지도'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진 발생가능성이 작았던 영광·무안 등 전남 서·남부 지역 11곳을 '지진 I 구역'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광주·전남이 '지진 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진 원자로 자동정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을 감지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렬기자 halo@

# 돈 되는 '관상어'

전남도, 300억 투입 품종개발 등 산업화 추진

전남도가 수산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관상어 산업화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020프로젝트'로 이름붙여진 이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희귀 관상어종 품종 개발, 명품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양식어가 기술이전 등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일 "국내의 담수어를 아우르는 '민물고기 회귀어종 종 보존시설'이 최근 마무리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100㎡의 면적에, 2층 규모로 사육비 50

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인공부화장과 친어(어미물고기) 관리통, 유전자 검사실, 태양열을 이용한 가온시스템,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비단잉어와 금붕어 등을 비롯해 아로와나, 엔젤피시, 구치, 늑대거북, 콩고기, 각시붕어, 동사리 등 국내외 희귀어종 60여종 1만2000여 마리가 종 보존 대상이다.

관상어 산업화에는 총 300억원이 투입돼 관상어 상설 유통단지를 비롯해 전시·홍보관 건립, 관상어 전문 검역장 등이 설치된다. /정필수기자 bungy@

# 가정폭력 부모 4년간 친권 정지

정부, 민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

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 미래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행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행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